

재난영화 현실로... 통제 벗어난 '코로나19' 공포·충격

이틀간 신규 확진자 398명 폭증
총 602명 중 신천지 관련 329명
사망자 4명 늘어 누적사망자 5명
감염병 경보, 경계→'심각' 격상

한 편의 재난 영화 같은 상황이 현실 속에 펼쳐지고 있다. 지난 이틀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에 달했고, 누적 사망자도 5명이나 발생하면서 감염증은 사실상 통제를 벗어났다. 이 같은 추세라면 확진자 수는 수일내 1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의 첫 확진자가 나오지 한달, 잠잠해지는 듯 했던 코로나19가 최근 며칠 새 갑자기 폭발적으로 확산하며 충격과 공포가 전국을 뒤덮었다.

◆이틀만에 398명 감염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국내에는 총 169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22일 총 22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데 이어, 또 하루만에 1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발생했다. 지난 이틀간 발생한 환자는 모두 명, 이제까지 국내 누적 확진자는 총 602명이다. 그 사이 사망자도 4명 늘면서 누적 사망자는 5명이 됐다.

신천지 대구교회와 연관된 환자는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날 발생한 신규 확진자 123명 가운데 신천지대구교회 관련자는 75명으로 집계됐다. 75명 가운데 63명은 대구에서 발생했다. 이제까지

감염병 재난 위기 경보 수준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	코로나19 격상 시기
관심	해외에서의 신종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국내 원인불명·재출현 감염병의 발생	1월 20일 국내 최초 발생
주의	국내 유입	제한적 전파	1월 27일 확진자 4명
경계	국내 유입된 감염병의 제한적 전파	지역사회 전파	2월 23일 확진자 556명*
심각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전국적 확산	

자료/질병관리본부 *23일 오전 9시 기준 연합뉴스

지 발생한 총 602명 확진자 중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사례는 329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54%를 차지한다. 대구·경북 환자는 총 494명으로 늘며 전체 82%를 차지했다.

이날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 중 첫 사망자가 발생하며, 사망자는 총 5명으로 늘어났다. 이날 숨진 38번째 환자는 56세 여성으로 치료 중 호흡곤란 증세 등 중증 상태를 보여왔다. 사망자 4명 중 3명은 청도 대남병원 입원 환자다. 나머지 1명(3번째 사망자)은 경북 경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41세 남성으로 첫 번째 사망자와 마찬가지로 사후에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는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이날 서울 1명, 부산 8명, 광주 2명, 경기 4명, 경북 25명, 경남 10명, 제주 1명의 추

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부산 2명, 광주 2명, 경기 3명, 경북 9명, 경남 3명은 모두 신천지 대구교회 연관자다.

확진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인원도 2만2000명을 넘어섰다. 이중 6039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추가 사망자가 발생할 우려도 크다. 현재 확진자 중 에크모나 기계(인공)호흡을 하는 중증 환자는 2명이며, 산소마스크 치료를 받는 환자는 4명으로 알려졌다.

◆추가 확산 막을 수 있나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방역당국의 대응체계를 믿을 수 없다는 비난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급격히 번지고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지가 제일 큰 문제다. 정부는 현재 9334명의



23일 오전 광주 동구 동명교회 분당 앞에서 교회 관계자들이 외부인 예배 참석을 통제하기 위해 신도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도의 명단을 확보한 상태이며 몇명이 남아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방역 당국은, 이제까지 파악된 신천지 교인 9334명 가운데 유증상자는 1248명이며, 이제까지 293명의 검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갑작스럽게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커졌다. 특히, 전일까지 야근을 하고 경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3번째 사망자의 사망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공포를 키웠다. 감염병 대응 지침에 따라 이 환자의 시신은 부검을 거치지 않은 채 바로 화장됐다.

정 본부장은 "40대 경주 사망자에 대해서는 일단 정확한 사망원인이 뭔지에 대한 조사가 선행돼야 된다"며 "부검을 실시하지는 못했고, 환자의 기존의 과거 병력이나 최근 의무기록, 검사결과들

을 확인해 중앙임상 TF 등 전문가들과 사망원인을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경보단계가 최고치로 올라간 것은 지난 2009년 환자 75만명이 발생했던 신종인플루엔자 사태 이후 처음이다.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바뀌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아닌 아닌 총리실이나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대책본부가 만들어져 조금 더 강도 높은 방역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경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심각 단계가 되면 중수본과 질병관리본부의 방역대책본부, 그리고 각 시도별로도 재난안전본부 등의 조직들이 격상되면서 강화되고, 시행하는 조치들도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확진자 태운 구급차 행렬

23일 오후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으로 이송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태운 구급차들이 줄지어 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환자 급증으로 격리 공간 부족 등 문제가 드러나자 내일까지 계명대 대구동산병원(248병상)과 대구의료원(239병상) 2곳에서 487개 병상을 확보해 활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방역망 '유명무실'... 생존은 '각개전투'

대구·경북 지역만 마스크 집중공급
이외지역 마스크 비싸도 모두 동나
SNS선 일회용 세척방법 등 공유
직장인, 출근 등 일상생활도 공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19(코로나19)로 인한 공포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주말 사이, 하루 수백명의 확진자가 연이어 쏟아지면서 정부가 구축해놓은 방역망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탓이다. 코로나19 환자 증가세가 지금처럼 지속되면, 의료기관 대응 체계도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공포를 더욱 키우고 있다. 이제 스스로 살아남는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생존 노력에 나섰다.

◆'생존게임' 이 시작됐다

2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600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5명으로 늘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이번 주 안에 코로나19 확진자는 1000명을 넘어설게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점차 고갈돼가는 마스크다. 정부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마스크를 먼저 공급하며, 이외 지역에서는 구할 수 있는 마스크 물량이 전혀 없다. 감염증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 사재기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터무니없이 비싼



23일 오후 대구시청 앞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지원에 나설 공무원과 의료진, 군인 등에게 나눠주기 위해 긴급지원팀 방호복과 고글 등이 도착해 있다. /연합뉴스

가격에 판매되던 마스크도 모두 동이난 상태다.

인천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전 모씨는 "정부가 남아있던 마스크 물량을 모두 가져가는 바람에 약사 자신이 쓸 마스크도 전혀 구할 수가 없다"며 "마스크를 찾아 돌아다니며 패닉이 된 고객들의 얼굴을 매일 보는 것도 정말 힘들다"고 토로했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각자의 생존 방식을 찾아가고 있다. SNS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방제용 필터를 구입해 등산 마스크 안에 넣어 사용하거나, 이미 사용한 일회용 마스크를 세척해 방한 마스크와 이중으로 착용하려는 대안을 공유하고 있다.

◆직장인 "출근해도 되나요"

약동같은 주말을 보내고 출근을 해야 하는 직장인들의 걱정도 크다. 생업을

중단할 수 없어 마스크와 장갑, 손세정제까지 챙겨왔지만 집 밖으로 나서기가 두렵다.

직장인 고 모씨는 "대중교통과 택시 중 뭐가 더 안전한지, 비싼 주차요금을 부담하더라도 당분간 자차운전을 해서 나가야 하는 건지 판단이 안선다"며 "수백명이 오가는 사무실은 종일 마스크를 써도 불안하고, 함께하는 식사자리, 회의도 모두 신경쓰인다"고 토로했다.

업무상 가야 하는 회사자리와 출장은 또 다른 걱정이다.

통신사 마케팅팀에 근무하는 정 모 팀장은 "직장 상사가 함께하는 자리에 바이러스가 두렵다고 부하직원이 참석을 거부할 수는 없지 않나"며 "매번 핑계를 대기도 어렵고, 상대측이나 뒷선에서 알아서 취조해주기를 바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업계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치"

>> 1면 '공장 섰다온 막아라...'서 계속

대구-구미 지역 출장도 막아놓은 상태다.

LG그룹은 감염 의심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 발열자는 물론, 대구와 청도 지역 거주자나 방문자를 사업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 것.

사업장간 출장을 금지해 만약의 사태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에서도 현대차가 '1일1방역'을 비롯한 전방위적 방어 시스템을 가동하는 가운데, 수시 체온 측정은 물론이고 회의를 화상

으로 대체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 중이다.

SK도 SK하이닉스가 일찌감치 의사자 발생에 따라 공용공간 폐쇄 등 예방 조치를 대대적으로 확대했고, SK실트론 등 사업장에서도 대응책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당장 생산 중단뿐 아니라 유급 휴가에 따른 임금, 이미지 타격까지 천문학적인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며 "다소 과하다 싶을 정도로 조치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